

사람들·대지의 갈증 적시는 미륵신앙 젖줄



완주 모악산(母岳山·793.5m)은 충남 계룡산과 함께 구한말의 신홍종교 메카답게 동학·증산교·원불교 같은 민족종교의 영지로, 예로부터 난을 피할 수 있는 피란처이자 각종 무속신앙의 본거지로 알려져 왔다. 모악산의 무엇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미륵신앙, 후천개벽, 정감록 등 사상들의 모태가 되었을까?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정여립, 전봉준·소태산·강중산 등 혁명가와 신홍종교 창시자들에게 젖줄 역할을 했던 모악산 금산사(金山寺)는 미륵 사상의 발원지다.

모악산은 평야지대에 우뚝 솟은 전형적인 육산이다. 전주에서 남서쪽으로 12km 거리에 있으며 김제·완주·전주에 걸쳐 있고,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전주의 상징', '어머니의 산'으로 불릴 만큼 명성이 자자한데 비해 산행지만 높고 따지자면 솔직히 심심하다. 큰 기운이 느껴질 법한 정쾌한 압력이 없고 능선들은 소동처럼 부드럽우며 기복도 심하지 않다. 허나 명불허전이다. 모악산에 녹아 있는 4가지 포인트를 이해하고 들여다본다면 위명이 달라진다.

명당 기운 좇는 수행자들 발자취
모악산에 오르기 전에 4가지 포인트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로, 풍수에 관한 것이다. 모악산은 최정몽우백호지맥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라 한다. 명당은 좋은 기를 가진 땅이다. 산이 성곽처럼 사방을 감싸 그 공간 전체를 보국하는 길지란다. 대표적으로 모악산 장군봉의 기운이 머무르는 '전주김씨 시조 묘' 터는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32대 조상인 고려 무신 김

태서의 묘를 품고 있다. 둘째로 좋은 물이 있다. 곡창지대인 김제평야와 만경평야, 백제시대 벽골제도 모악산의 물줄기를 기반으로 둔다. 모악산은 어느 곳이나 물이 넘쳐흐른다. 특히 8부 능선쯤에 있는 수왕사(水王寺)의 석간수는 수왕(水王)이라 칭한다. 물의 왕, 오죽 했으면 그런 이름을 얻었을까? 바위틈에서 솟아 나오지만 철분이 느껴지지 않고 깨끗하다. 이 수왕사 약수로 38도짜리 약주인 송화백일주를 빚는다. 송화백일주는 수왕사 주지에게 대대로 전승되며 12대 전승자 백암 주지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1호로 지정돼 있다.

셋째로 천년고찰 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599)에 창건되었다. 금산사 내에는 국보 제62호 미륵전과 보물 10점을 보유하고 있다. 금산사는 신라불교 오교구산(五敎九山)의 하나로 신라 고승 진표율사가 미륵전을 지어 미륵불을 모신 이후 미륵신앙의 근원 도량으로 변모했다. 미륵불이란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뒤 56억7000만년이 지난 미래의 사바세계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는 부처를 말한다. 진표율사는 금산사의 실질적인 창건주나 다름없다. 12세에 출가. 27세에 변산 부사의방장 토굴에서 운몽을 돌로 두들기며 고행하는 '망신 참법' 수행자로 유명하다.

또한 후백제의 견훤이 만이들 신검에 의해 935년 금산사에 유배되었다가 이곳에서 탈출한 후 고려 왕건에게 투항했고, 이어서 후백제가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애증의 장소이기도 하다. 정유재란 때 80여 동 건물과 40여 암자가 모두 불에 타는 수난을 겪었지만 1635년(인조 13) 수문대사 이후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금산사의 말사 대원사(大院寺)는 세 명의 걸출한 인물이 거쳐 갔다. 조선 중기 명종 때 진묵대사(震默大師 1562~1633)와 구한말 소태산(少太山 1891~1943) 강중



모악산에서 바라본 정상 조망바위.

기인·명사들 수행처, 수왕사 발 아래 구이저수지 풍광 절경

산(姜嶺山 1871~1909)이 바로 그들이다. 진묵대사는 호남지역에서 '신통력' 있는 부처의 환생'이라며 존경받는 승려다. 원불교를 창립한 소태산은 '물결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가치를 높이 세우고 대중적인 종교운동을 펼쳐갔다. 증산교를 창시한 강중산은 대원사에서 수행하며 도를 이루었다고 하여 평소 "나를 보러거든 금산사 미륵불을 보라" 라고 했다. 금산사와 대원사는 증산교의 성지로 추앙받고 있다.

산행은 구이저수지인 모악산 국민관광단지에서부터 출발해서 금산사로 하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점회귀를 할 경우, 모악산 국민관광단지에서 출발, 정상을 찍고 천일암과 천룡사를 거쳐 하산하면 6km 정도 산행이 가능하다. 상가동 끝에 있는 '모악산' 표지석 뒤쪽

부터 실질적인 등산로가 시작된다. 선녀폭포는 크게 볼거리는 아니다. 오히려 선녀바위 위쪽 0.4km 지점에 있는 '전주김씨 시조 묘'에서 바라보는 구이저수지의 조망이 빼어나다. 계곡으로 오르는 길이 혼동되는 곳도 있지만 모두 대원사로 이어진다. 대원사 터는 연꽃의 꽃심에 해당하며 안은하다. 전각이 많지 않은 아담한 규모다. 백제시대에 개산했다고 하나 고려시대 무덤도 없고는 고찰의 위엄은 없다.

수왕사에서 내려다보는 조망 절경
대원사에서부터 수왕사까지 0.8km 구간은 조금은 가파른 경사다. 들계단을 계속 오르며, 아름드리 소나무의 우산 같은 모습이 좋다.
수왕사 갈림길 삼터에서 왼쪽으로 10m 거리에 있는 모퉁이를 돌면 수왕사다. 구이저수지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진묵조사가 마셨을 석간수 한 모금

이런 수행자처럼 마음까지 맑아질 듯하다. 무제봉은 기우제를 지냈다는 장소로서 납작한 봉우리다. 구이저수지가 큰 강줄기처럼 도도하게 조망된다. 건너편 정상 송신탑 쪽엔 천룡사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장군봉과 대감바위가 있다. 정상에는 방송통신시설과 군 통신시설이 들어서 있어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송신탑 철골구조물 사이에 정상석 대신 삼각점이 있다. 북쪽으로 미륵산, 계룡산, 대둔산이 조망되고 동쪽으로 덕유산, 성수산, 만덕산까지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탁 트인 조망이 압권이다.

벚꽃 명소로도 이름난 금산사 산문을 나서면서 고승들의 진리를 모은 선여록(禪錄) 한 구절이 생각났다. '명당(明堂)은 하늘과 땅, 바위와 물, 바람과 빛의 조화가 이뤄진 곳으로 잠시 머무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진다. 현현할 수 없는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온다.' 명당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리라.
글·사진·김희순 산 전문기자



대원사 입구



신원암 상층석탑

▶**산행 길잡이** 모악산관광단지~선녀폭포 갈림길~대원사~수왕사~무제봉~정상(송신탑)~헬기장~삼층석탑~심원암~금산사~주차장(9.8km 약 4시간 30분)
▶**볼거리** 모악산 줄기에는 4대 종교들의 성지가 많다. 금산사 입구에 있는 금산교회는 1908년에 세워졌다. 7자 형태의 초기 교회의 독특한 구조를 보게 된다. 조력상 장로가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지역을 묵사로 성장시키며 그를 섬겼던 일화가 유명하다. 오리알터(금평저수지) 주변에는 증산교의 성지인 동곡약방, 강중산 부부의 무덤을 봉안한 증산법종교, 제비산과 호남 3대 성당으로 동양에서 가장 많은 신부를 배출한 수류성당이 있다.

www.global-dh.com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